

미국,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新 개발금융기관(USIDFC) 설립 추진

1. 추진 배경 및 경과

- (개발재원 수요 변화) 개발도상국 경제수준 향상에 따라 개발재원 수요가 보건, 식량 안보 등을 위한 원조자금에서 교통, 에너지 등의 경제인프라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중심으로 변화
 - 또한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 중 ODA 비중이 급감하면서 ODA는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 부각
- (美 개발협력 문제점) 미국은 증여 위주*의 원조 시행으로 원조사업이 자국 기업의 개도국 비즈니스와 연계되지 않아 국익 실현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예산 삭감이 지속되고 있음
 - * 최근 3년('14-16년) 간 양자간 원조의 100%가 증여로 지원되었으며, 분야별로는 긴급구호물자 등 인도주의적 지원 23.5%, HIV/AIDS 등 성병 퇴치 17.8% 순
 - EU국가와 중국 등은 금융협력 수단 확대·다변화를 통해 개발 협력에 민간참여를 유도하여 자국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지원
- (개발금융기관 설립 논의) 트럼프 대통령은 '17.11월 베트남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 시 美 개발금융 조직개편 계획을 언급하였으며, '18.2월 발표된 2019년도 예산안에 신규 개발금융기관 설립 포함
- (설립 법안 발의) 2월 27일 美 의회는 개발금융회사(USIDFC*) 설립을 위한 "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 Leading to Development(BUILD)" 라는 초당적 법안 발의

* United States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

2. USIDFC 설립 법안의 주요 내용

- (설립 목적) 美 개발원조 목표 달성과 대외정책 이익 증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민간 자본 및 기술의 참여를 촉진

- 재정 부담이 큰 증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,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민간자본 동원 촉매제로서 개발 금융의 역할을 강화
- (조직 통합) 美 최대 개발금융기관인 OPIC*(해외민간투자공사) 전 부문과 USAID(국제개발처)의 민간 금융협력 부문(private sector-oriented parts)을 통합
 - * OPIC(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)은 '69년 설립된 개발금융기관으로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하며 '17.9월 기준 90개국 앞 총 232억불의 포트폴리오 보유
- OPIC은 USAID의 민간 앞 금융지원 부문*을 흡수 통합하여 원스톱 개발금융 패키지 제공이 가능한 원조기관으로 재탄생
 - * ① Development Credit Authority(DCA, 개도국 개발사업 대출에 대해 현지금융기관 및 개발기구 앞 보증 제공) ② Enterprise Funds(개도국 중소기업 사업초기자금 지원) ③ Office of Private Capital and Microenterprise(개도국 중소기업 자문, 기술협력, 금융지원)
 - 특히 DCA는 '99년 설립 이후 총 48억불의 개도국 개발사업을 지원하였으며, 최근 규모가 급증하여 '16년 약 8.9억불 보증 제공
- (업무범위 확대) OPIC의 기존 금융수단(대출, 보증, 보험)을 유지하고 직접투자, 소규모 무상지원, 현지화대출을 업무범위에 추가
 - (대출·보증) 최대 상환기간은 25년으로, 미국인이 소유하거나 운영권을 가진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여 민간자본의 개발사업 참여 촉진
 - (보험·재보험) 민간기업 혹은 적격 공기업의 개발사업 투자에 대해 모든 정치적 위험* 커버하여 개도국 사업의 사업성 보강
 - * 송금이전 제한, 환전 불가, 재산 몰수, 전쟁, 테러 등
 - (직접투자) 개발사업의 최대 20%, USIDFC 전체 포트폴리오의 35%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해져 주도적 사업 참여와 구조화 가능
 - (소규모 무상지원) 프로젝트 개발, F/S 수행, 기술협력에 대한 무상원조가 가능해져 사업준비단계 지원을 통한 인프라사업 등 대규모 사업개발 가능성 증대
 - (현지화 대출) OPIC은 달러화 대출만 취급했으나 현지화 대출로 대출통화가 확대되어 개도국 현지 사업자의 환변동 위험 제거

- (지원한도 확대) 연간 대출·투자 한도를 '17년 OPIC 대출규모의 약 2배인 80억불로, 총 익스포저 한도를 290억불에서 600억불로 대폭 확대

3. 향후 전망

- 무상 위주의 원조에서 벗어나 대출, 투자 중심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서 민간재원 동원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
 - 민간자본 참여에 따른 자국 기업의 신시장 개척, 수원국-자국 기업의 관계 구축 등 개발협력과 자국 상업이익 간 상생(Win-Win) 추구 가능
- 신설 개발금융기관에 무상원조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 발굴과 개발효과 거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 - 기존 OPIC에 없던 무상원조 수단을 USAID로부터 확충하여 사업 개발, F/S 수행, 기술협력 등 지원 가능
- 의회와 백악관은 기존 개발협력 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동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, 트럼프 정부의 추진력을 고려할 때 개발금융기관 신설은 곧 가시화될 전망
 - 다만, 입법절차 소요기간 감안 시 설립 법안의 연내 통과는 불확실

자 료 : Devex 웹사이트(<https://www.devex.com/news/support-for-new-us-development-finance-bill-even-as-some-details-are-questioned-92220>),
BUILD ACT of 2018(<https://www.foreign.senate.gov/download/build-act-of-2018-text>)
CGDev 웹사이트(<https://www.cgdev.org/blog/congress-wants-build-full-service-us-international-development-finance-corporation>)

작 성 : 심사역 윤 소 담, sodamyun@koreaexim.go.kr